

임상병리학과 학생의 해부학 실습 교육에 대한 설문연구

이나윤¹, 배안나¹, 이재호¹, 허유란²

¹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²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해부 및 발생생물학 연구실, BK21 창의치의학융합 교육연구단, 개인식별연구소

Survey Study on Practical Anatomy Education for Clinical Pathology Students

Na Yoon Lee¹, An-Na Bae¹, Jae-Ho Lee¹, Yu-Ran Heo²

¹Department of Anatomy,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²Division in Anatomy and Developmental Biology, Department of Oral Biology, Human Identification Research Institute, BK21 FOUR Projec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Abstract : A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 is a type of medical technician who performs diagnostic and physiological tests and anatomical and pathological tests. In the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where they are trained, practical education in anatomy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uman body. However, the current educational approach consists of theory-oriented classes that rely on simple memorization, highlighting the necessity for practical anatomy education utilizing cadavers to achieve higher-quality learn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ecessity of anatomy practical education in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and aims to contribute to its systematic constitution. A survey was conducted with 69 students from a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at a university who participated in an anatomy practical program at K University in Daegu. The surve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anatomy practical education,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and time, and the necessity of its integration into the standard curriculum. The survey consisted of 13 multiple-choice questions, 2 multiple-response questions, and 2 open-response ques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all 69 students expressed interest in anatomy practical, with 94.2% stating that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regular curriculum. 88.4% of students responded that utilizing cadavers is beneficial as an educational method. The most preferred timing for effective practical education was the second year (53.6%), with 60 minutes (33.3%) identified as the appropriate duration for pre-education, and 2~3 hours (46.4%) for practical sessions. The systems and areas students expressed a desire to observe more closely were the digestive system (17.2%) and the head region (17.6%), respectively. Through this study, the demand and necessity for practical anatomy education were identified,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anatomy practice education by researching practical methods that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natomy education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 students.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March 22, 2024; **Revised:** April 19, 2024;

Accepted: May 8, 2024

Correspondence to: 허유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E-mail: YRHeo@yuhs.ac

Keywords : Anatomy practical education, Anatomy practical outcomes, Cadaver dissection practice, Clinical laboratory science

서 론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과 등과 같은 보건계열학과의 학생들은 의료법, 의료기사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 시험을 응시하려면 해부학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1]. 임상병리사는 정확한 진단·생리 검사 및 해부·병리적 검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위치와 주변 장기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를 통한 이론 위주의 수업이 대다수이며, 실습 교육은 보건계열학과의 특성상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일부 대학의 작업치료학과나 물리치료학과와 같은 경우 실습 교육과 유사한 근골격계 중심의 심층수업과정이 존재하지만 임상병리과는 이러한 교육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2].

이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CD롬, On-line, 3D 시각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교수법을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구비와 개발 및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 사람의 형태와 구조를 만져보고 느끼면서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이해력 향상 및 학습동기부여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이처럼 해부학 실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건계열 대학에서는 시체 해부·보존에 대한 전문 인력과 실습실의 부족으로 실습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단순히 교과서와 인체모형, 동영상 등을 이용한 교육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은 해부학 교육 자체에 흥미를 떨어뜨리며, 인체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7]. 최근 많은 대학의 보건계열 학과에서 해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나, 임상병리학과를 대상으로 한 해부학 실습의 교육적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병리학과와 해부학 실습 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교육의 양과 질적 요소를 제시하여 향후 해부학 실습 교육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구에 위치한 일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해부

학 실습 견학에 참여한 일개 임상병리학과 학생 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되었으며, 이 중 남자는 7/69명(10.1%), 여자는 62/69명(89.9%)이었으며, 학년 분포는 1학년 9/69명(13.0%), 2학년 44/69명(63.8%), 3학년 16/69명(23.2%)이었다. 해부학 실습 견학은 윤리 교육과 국소해부학으로 이루어진 이론 수업 1시간과 3시간의 실습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실습수업은 해부학을 전공한 석·박사 선생님들이 이미 해부가 종료된 4구의 시신을 머리·목, 가슴, 배, 팔다리로 분류하여 각각 20~30분 정도 설명하였다. 시신 1구당 약 10명의 학생들이 설명을 듣도록 하였다. 이후 시신을 직접 만지고 관찰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으며, 주사기를 이용하여 근육이나 혈관의 두께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자료수집은 G사의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성별과 학년, 해부학 실습 전·후의 흥미도, 해부학 실습의 적절한 교육 방법 및 교육 시간, 해부학 실습의 정규 교육과정 편입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총 17문항 중 13개의 단일응답식 문항과, 2개의 다중응답식 문항, 자유기술식 2문항이었다. 다중응답식 문항은 해부학 실습 과정 중 가장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싶은 계통과 부위를 나열하여 각각 1, 2, 3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중복 선택이 가능하게 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Version 27.0, IBM, USA)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다중응답 분석 중 빈도 분석을 통하여 학년별 응답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결 과

1. 해부학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해부학 실습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흥미로웠다’로 대답한 학생이 66/69명(95.7%), ‘흥미로웠다’로 대답한 학생이 3/69명(4.3%)으로 모든 학생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해부학 실습이 해부학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지, 실습 후 해부학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였는지, 향후 직업의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해부학 실습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41/69명(59.4%), ‘그렇다’는 24/69명(34.8%), ‘보통이다’는 3/69

Table 1. Student's response to anatomy practice

Question	Answer N (%), (N = 69)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Interesting in anatomy practice	66 (95.7)	3 (4.3)	- (-)	- (-)	- (-)
Anatomical practice impact on learning anatomy	63 (91.3)	6 (8.7)	- (-)	- (-)	- (-)
Increased anatomy interest post-practice	64 (92.8)	5 (7.2)	- (-)	- (-)	- (-)
Helpful for professional activities	63 (91.3)	6 (8.7)	- (-)	- (-)	- (-)
Necessity of practice as regular curriculum	41 (59.4)	24 (34.8)	3 (4.3)	1 (1.4)	0 (0.0)

Table 2. Teaching method of dissection practice

Category	N (%) (N = 69)
Cadaver dissection	61 (88.4)
Use of plastic models	3 (4.3)
Use of pictures	3 (4.3)
Utilization of audiovisual (video, etc.) materials	1 (1.4)
Others (group activities, etc.)	1 (1.4)

명(4.3%), ‘아니다’로 대답한 경우는 1/69명(1.4%)이었다 (Table 1).

2. 해부학 실습의 교육 방법

해부학 실습의 교육 방법 중 가장 유용한 방법을 묻는 문항에는 ‘시신 해부’로 대답한 학생이 61/69명(8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플라스틱 모형 활용’과 ‘그림 활용’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3/69명(4.3%)으로 같았다.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나 기타 그룹 활동을 통한 방법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각 1/69명(1.4%)으로 같았으며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3. 해부학 실습의 효과적인 교육 시기

해부학 실습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1학년이 효과적일 것이다’로 답한 학생이 28/69명(40.6%), 2학년이 37/69명(53.6%), 3학년이 4/69명(5.8%)이었다. 상세한 학년별 답변은 Table 3에 표현되었다.

4. 해부학 실습 전 적절한 사전 교육 시간

윤리 교육을 포함한 해부학 실습을 위한 사전 교육 시간은 15분이 적절하다고 답한 학생이 5/69명(7.2%), 30분이 22/69명(31.9%), 60분이 23/69명(33.3%), 90분 이상이 19/69명(27.5%)이었다(Table 4).

Table 3. Grade-wise responses on the optimal timing for effective Anatomy practice sessions

Respondent	Optimal timing for effective			N (%) (N = 69)
	Freshman	Sophomore	Junior	
Freshman	4 (44.4)	5 (55.6)	0 (0.0)	9 (100.0)
Sophomore	17 (38.6)	26 (59.1)	1 (2.3)	44 (100.0)
Junior	7 (43.8)	6 (37.5)	3 (18.8)	16 (100.0)
Total	28 (40.6)	37 (53.6)	4 (5.8)	69 (100.0)

Table 4. Adequate anatomy practice sessions time for questionnaire respondents

Section	Category	N (%) (N = 69)
Appropriate pre-training sessions time before anatomy practice	15 min	5 (7.2)
	30 min	22 (31.9)
	60 min	23 (33.3)
	more than 90 min	19 (27.5)
Appropriate anatomy practice sessions time	within 2 h	20 (29.0)
	2~3 h	32 (46.4)
	3~4 h	13 (18.8)
	4 h or more and less than a day	3 (4.3)
	more than 2 days	1 (1.4)

5. 적절한 해부학 실습 교육 시간

사전 이론을 제외한 해부학 실습 교육 시간은 2시간 이내가 적절하다고 답한 학생이 20/69명(29.0%)이었다. 2~3시간이라고 답한 학생은 32/69명(46.4%), 3~4시간은 13/69명(18.8%), 4시간 이상 하루 미만은 3/69명(4.3%), 2일 이상은 1/69명(1.4%)이었다. 적절한 해부학 실습 교육 시간은 2~3시간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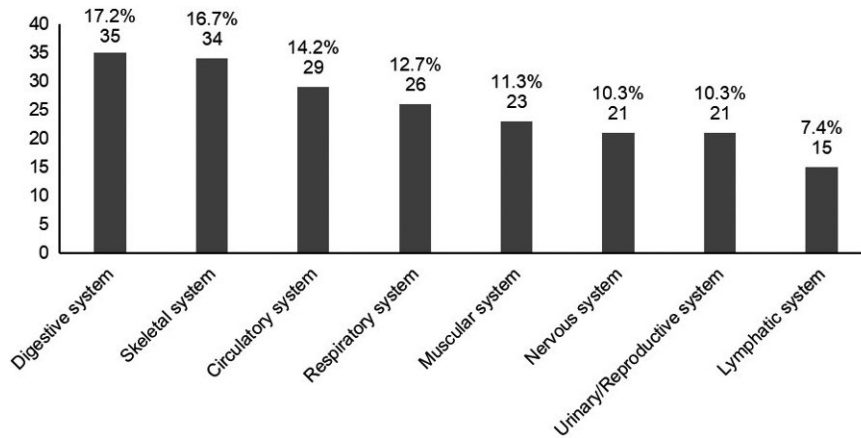


Fig. 1. Number one 'system' you want to focus on by questionnaire respondents (N=204). *Various systems were listed in order of highest frequency of selection when respondents duplicated their choices for the system they most wanted to observe attentively in the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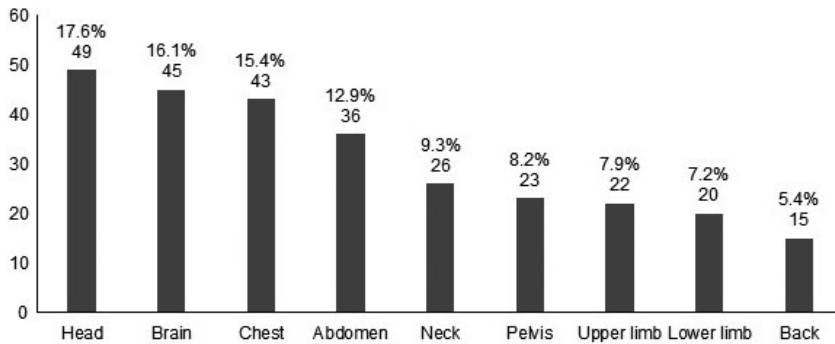


Fig. 2. The number one 'part' you want to focus on by questionnaire respondents (N=279). *Various anatomical regions were listed in order of highest frequency of selection when respondents duplicated their choices for the part they most wanted to observe attentively in the survey.

6. 가장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싶은 계통과 부위 1순위

먼저 계통에 따른 분류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소화계통으로 17.2% (35/204)였으며, 두 번째로는 뼈대계통이 16.7% (34/204)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순환계통으로 14.2% (29/204)의 학생들이 뽑았으며, 호흡계통은 12.7% (26/204), 근육계통은 11.3% (23/204), 신경계통과 비뇨생식계통은 10.3% (21/204)로 같았고, 림프계통이 7.4% (15/2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Fig. 1).

국소해부학적인 부위에 따른 분류에서는 머리가 17.6% (49/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게 나온 부위는 뇌로 16.1% (45/279)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가슴 15.4% (43/279), 배는 12.9% (36/279), 목이 9.3% (26/279), 골반이 8.2% (23/279), 팔이 7.9% (22/279), 다리가 7.2% (20/279), 등이 5.4% (15/2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Fig. 2).

고찰

임상병리학과에서 해부학은 전공과목을 습득함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목이다. 그러나 현재 주로 진행하고 있는 방법인 교과서와 인체모형 및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은 흥미를 떨어뜨리며 3차원적인 인체의 구조보다는 의학 용어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해부학 실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8]. 이전 연구에서는 임상병리학과를 포함한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중심의 해부학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55/130명(42.3%), “중간”은 64/130명(49.2%), “불만족”은 11/130명(8.5%)으로 교과서 중심의 수업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 하지만 임상병리학과를 대상으로 한 해부학 실습의 교육적인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임상병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부학 실

습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해부학 실습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설문에 응답한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은 총 69명이었으며, 2학년이 63.8%로 가장 많았고, 1학년이 13%로 가장 적었다. 대부분의 임상병리학과에서는 1학년 과정에서 해부학을 기초과목으로 배우고 있으므로 이론을 모두 배운 뒤인 2학년과 3학년이 1학년보다 해부학 실습 견학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부학 실습수업에 대한 흥미도, 해부학 학습에 도움을 주는 정도, 실습 후 해부학에 대한 흥미도 상승 여부, 향후 직업 활동에 기여 정도, 정규 교육과정 편입을 묻는 문항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결과에 따라 해부학 실습은 학습효과 증대와 임상적 활용에서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보건계열학과를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효과적인 해부학 학습방법은 시신 해부를 통한 해부학 실습으로 평가되었다[9]. 해부학 실습 시 시신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논문에서는, 시신 사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8/5점인 반면, 플라스틱 모형이나 그림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2.36/5점으로 나타났다[1].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부학 실습의 가장 유용한 교육 방법으로는 시신 해부를 통한 교육 방법이 88.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플라스틱 모형을 이용하는 교육 방법에도 기본적인 장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깊은 구조물의 확인이 어렵거나 또는 세밀하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사람의 몸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효과적인 교육 시기로는 대부분의 학생이 2학년이라고 대답하였으며, 3학년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년별 학생 수의 비율이 같지 않으므로 2학년 때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 시기라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지만, 1학년과 2학년은 기초과목으로 해부학을 배우는 직전 또는 직후이므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3학년은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습을 수행하기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해부학 실습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K대학교에서는 해부학 실습 전에 윤리 교육을 포함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교육 중 '시신 해부 서약서' 서명을 통해 보건계열 학생들이 시신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간략하게 이론을 설명하여 실습의 효율을 최대화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교육의 적절한 시간을 조사하였을 때, 60분이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30분과 90분 이상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치위생과를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는 30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되었으며, 120분과 90분이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한다[9]. 다른 연구에서도 견학 전 이론 설명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되었고,

90.72%라는 높은 결과로 견학 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 설명은 15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설명의 이해도와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였다[7]. 이전 연구와 본 연구 모두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해력과 실습에 대한 거부감, 선행학습 정도에 따라 필요하다 생각되는 시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해부학 실습의 시간은 2~3시간이 적합하다고 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이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과마다 2~5시간 사이로 희망하는 실습 시간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전공별로 중요한 부위나 교육목표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10]. 적절한 사전 교육 시간과 해부학 실습 시간의 결과를 보았을 때, 학생들의 이해 능력과 선행학습 정도, 학과의 특성마다 희망하는 실습 시간이 다를 것으로 추측되므로 실습 전 학습 수준 및 진도 확인과 학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싶은 계통은 소화계통이 가장 많았으며, 부위에서는 머리가 가장 많았다. 임상병리학과는 특정 부위가 중요한 학과이기보다 다양한 장기와 체내 혈액 및 체액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보편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와 같은 특정 부위의 중요도가 높은 학과의 경우, 각각 입과 얼굴, 근골격계와 같이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싶은 부위나 계통이 다르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임상병리학과를 포함한 여러 보건계열학과의 학생들은 시신을 이용한 해부학 실습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건계열 대학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습 시설 구비, 전문인력 등의 문제로 해부학 실습과 견학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해부실습실과 시신, 해부 전문인력을 갖춘 의·치·한의대학에서 견학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일개 대학의 임상병리학과 학생들로 한정되어 대상 인원이 적었으며, 학년별, 성별 비율도 균등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해당 학교의 임상병리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부학 수업이 어떤 교수매체를 이용하여 진행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기존의 수업방식과 시신을 이용한 해부학 실습 혹은 실습 견학을 비교하여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교의 임상병리과를 대상으로 학교별 교육 방법의 현황 조사와 학년별 결과를 도출한다면 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해부학 실습 견학을 통해 임상병리과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실질적인 실습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임상병리과의 해부학 실습 교육의 필요성과 요구도를 알리고, 효과적인 해부학 실습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자 하였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서 실습 교육에 대한 개발과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임상병리과와 같은 보건계열의 해부학 실습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

REFERENCES

1. Yoo HH, Song CH, Han EH, Kim HT. The effect of education program of cadaver dissection for the paramedical students. Korean J Phys Anthropol. 2014;27:145-54. Korean.
2. Jung SH, Ahn SJ.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survey of human anatomy dissection course taught by health science departments: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physical therapy, and occupational therapy. Korean J Clin Lab Sci. 2017;49:489-94. Korean.
3. Sim JH. The learning effects of instructional media on anatomy classes in a nursing college. J Korean Biol Nurs Sci. 2009;11:51-8. Korean.
4. Seo YH, Lee HJ.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anatomy using cadaver dissection: focusing on beginning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2018;13:109-15. Korean.
5. Kim DI.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n necessity of cadaveric dissection for nursing students: in scope of nursing students and professors. Korean J Phys Anthropol. 2015;28:119-25. Korean.
6. Kim DH. Effects of a 3D visualization application and game-based learning on gross anatomy education: focused on som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at Biol Anthropol. 2019;32:101-8. Korean.
7. Kim WS. The effect of observation program of cadaver dissection for the paramedical students. Korean J Phys Anthropol. 2012;25:77-86. Korean.
8. Kim JK, Kim YG, Burm E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and attitudes in nursing students after anatomy cadaver practice. AJMAHS. 2016;6:111-22. Korean.
9. Kim DH. The effect and suggestions for operation of cadaver dissection program for dental hygiene students. Korean J Phys Anthropol. 2015;28:213-21. Korean.
10. Son IA, Son MJ, Jeong GB. The effect of education in anatomy using cadavers to the paramedic students. JKCA. 2013;13:341-7. Korean.

간추림 : 임상병리사는 진단·생리 검사 및 해부·병리적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사 중 한 종류로, 이를 양성하는 임상병리학과에서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해부학 실습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육은 단순 암기를 요하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므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시신을 이용한 해부학 실습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임상병리학과와 해부학 실습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의 체계화에 기여하고자 조사되었다. K대학에서 진행된 해부학 실습 견학에 참석한 한 대학의 임상병리학과 학생 69명을 대상으로 해부학 실습 교육의 효과, 적절한 교육 방법 및 시간, 정규 교육과정 편입 필요성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은 단일응답식 13문항과 다중응답식 2문항, 자유기술식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69명(100.0%)의 학생 모두 해부학 실습에 대해 흥미를 느꼈으며,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65/69명(94.2%)이었다. 실습의 교육 방법으로는 시신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61/69명(88.4%)이었으며, 효과적인 실습 교육 시기는 2학년(37/69명, 53.6%), 사전 교육 시간과 실습 시간은 각각 60분(23/69명, 33.3%)과 2~3시간(32/69명, 46.4%)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싶은 계통과 부위는 각각 소화계통(17.2%)과 머리 부위(17.6%)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해부학 실습에 대한 요구도와 필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임상병리과 학생들의 해부학 학습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실습 방법을 연구하여 해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찾아보기 낱말 : 해부학 실습 교육, 해부학 실습 효과, 시신해부실습, 임상병리학과